

까시래기

이정원

따갑다.
손톱 옆에 돌아난 까시래기
뜯으려 뜯으려 해도
작아서 잡히지도 않네.

요 작은 것이
하루 종일 신경 쓰이게 만든다.
옷에 걸리기라도 하면
따가운 맛에 눈물이 찔끔
억지로 뜯어내면
새빨간 피가 손톱을 타고
피딱지를 만든다.

까시래기가 내 친구를 닮았다.
눈물이 많은 내 친구가
웬지 하루 종일 신경이 쓰인다.